

불국사 무구광정탑중수기.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 중앙박물관서 보관중

중수시기 1038년 추정

고려시대 11~12세기에 작성된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의 존재가 확인돼 학계를 흥분시키고 있다. 특히 불국사 사적과 석가탑 중수의 내력을 담고 있어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지 목서로 작성된 이 중수기는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을 해체할 당시 무구광정광다라니경(국보 제126호)과 함께 발견됐으며, '목서지편(墨書紙片)'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근무)에 따르면 1997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의 상태조사를 거쳐 이물질제거, 겹겹이 쌓인 종이쪽 찢치기 등 기초 보존처리가 진행됐고, 현재 110여쪽의 종이편으로 분리돼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하지만 아직 관공작업은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불국사무구광정탑중수기(佛國寺無垢光淨塔重修記)'라는 제하에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중수 내용을 이두를 사용해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한 시기는 '太平, 중국요나라 연호 18년'으로 돼 있어 고려 정종(靖宗)대인 1038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라는 제하의 중수 당시의 상황과 전망을 기록한 내용과 다라니경으로 추정되는 사경편 등도 존재가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까지 석가탑의 중수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중수기를 통해 고려시대에 중수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고려시대에 석가탑을 '무구광정탑' 또는 '서석탑'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며, "이 중수기 등에 대한 정리와 조사는 내년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 공안·화두 주제로 눈길 끈 학술발표 2題

공안과 화두는 같은가

공안과 화두는 같은가 다른가. 공안선과 화두선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공안은 왜 출현했으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선을 접해본 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만한 주제인 공안과 화두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돼 관심을 끌었다.

9월 15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선학회(회장 현각) 월례발표회에서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장)의 '공안선과 화두선' 과 박재현 경희대 강사의 '공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발표됐다. 인경 스님은 간화선 성립의 주역인 원오곡근과 대혜종고의 선사상을 비교함으로써 공안과 화두의 의미를 규명했고, 박재현씨는 공안의 기능을 살폈다.

잘 다루지 않았던 '공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도 이채롭지만, 두 발표자의 주제 접근 방식이 달라 더욱 흥미로웠다. 특히 박재현씨는 종교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철학적으로 간화선을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받았다.

인경 스님 '공안선과 화두선'

공안은 역사, 화두는 실존 과제 간화선 시작 대혜종고로 봐야

인경 스님(사진은 <백암록>과 <원오어록>, 대혜종고의 <대혜어록>을 통해 간화선을 정립한 이들 자신의 공안과 화두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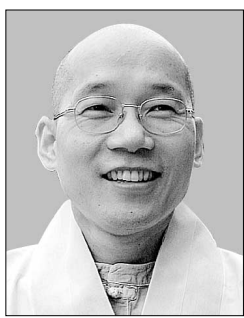
인경 스님에 따르면 원오곡근의 경우 <백암록>과 <원오어록>에서 나타나는 공안 개념은 다소 상이하다. <백암록>이 공안을 '옛 조사의 가르침, 선문답'으로 정의하고 공부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원오어록>은 공안의 본질을 '그 자체 진리의 현현(眞成公案)'으로 밝히고 있다.

두 책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인경 스님은 "〈백암록〉이 공안을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라면, 〈원오어록〉은 직접적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두 공안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 "공안은 현성공안으로 진리 자체를 보인 것이지만, 그것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결탁해 수행의 길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인경 스님은 원오곡근의 공안선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 공안을 활용해 학인들을 지도하는 공부법"으로 정의하며, "공안의 출현은 당(唐)대 마조·조주 스님 때 일이지만, 공안을 활용한 공부법(공안선)으로 발전시킨 것은 송대에 들어서"라고 분석했다.

원오곡근의 공안선을 화두수행법으로 체계화시킨 이는 제자인 대혜종고다. 이들은 공화 화두를 "과거의 사건인 공안을 관통하는 핵심적 연구"로 이해하고 있다. 대혜종고는 한 길을 더 나가 화두에 선사상적 의미를 부여했다. 대혜종고는 "공안은 과거의 단순한 기록에 불과하며, 진정 필요한 것은 절박한 자기문제로서의 화두"라고 강조하고, "화두의 본질은 의심이며, 화두에서 의심을 일으키라"고 말했다.

이로부터 인경 스님은 "공안이 수행의 대상으로 활용된 것은 송대부터"므로 공안의 성립을 공안선의 출현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화두선의 진정한 시점은 공안을 배격하고 화두 공부의 길을 마련한 대혜종고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현씨 '공안의 기능과 역할에...'

신비주의적 접근에 문제 제기 문자선 극복 위해 간화선 출현

박재현씨(사진의 발표는 공안에 대한 신비주의적 이해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 그는 먼저 "지금까지 공안이 주문처럼 신성하고 신비적인 것이어서 철학적 이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왔는데, 이 같은 태도는 선불교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차단함으로써 해석학적 회의주의로 귀결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계하며 "공안은 문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공안이 신비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래 공안이 만들어진 것은 "깨짐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여부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선문답이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언어화될 수 없는 현상성은 상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은 그 자체로 진리성을 간직하는 것으로 믿어졌고, 깨짐을 이루기 위한 초역사적인 모범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는 것.

박씨는 원오곡근의 <백암록>이 이 같은 문제인식에서 저술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원오곡근은 <백암록>에 선문답 외에 '평창(評唱)'이라고 하는 공안해석 형식을 덧붙임으로써 문자선으로 치달은 공안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립문자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당말에서 북송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중국 지식계는 지적 객관주의를 지향한 혼고학적 경향 속에서 나타난 '생기(生氣)의 부재'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간화선이 돌파구가 됐던 셈이다.

박씨는 "간화선은 종교적 도그마에 대한 신봉과 기호로서의 언어에 내포된 지적 객관주의를 비판하고 경계함과 동시에 선문답이 가졌던 수행적 기능을 되살려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화선은 의단을 강조함으로써 수행주체인 '나'를 복원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씨는 "나로부터 비롯된 '왜?'라는 질문과 함께 공안과 수행자 사이의 일방통행은 쌍방통행으로 바뀌고, 지적객관주의 속에서 사라져버린 수행주체인 '나'가 복원된다"고 덧붙였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5>

소나무와 나노 기술

금년 여름은 무덥고, 더위도 깊었다. 하지만 입추가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어떤 사람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해의 결실을 계획하면서 바쁜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한 여름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산사를 주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특히 법주사와 같이 산과 잘 어울려진 사찰은 세계의 어떤 문화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산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재정의 희생을 요구했던 유럽의 문화재에 비해서, 자연과 규모의 균형 갖춘 우리의 사찰은 인류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유산이다.

집은 탄소가 추가 되어 만들어진 물질이다. 나머지 물질은 모두 무기물질이다. 생명은 유기물질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과학에서는 유기물질이 중요한 대상이 된다.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 녹말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은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특히 법주사와 같이 산과 잘 어울려진 사찰은 세계의 어떤 문화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산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재정의 희생을 요구했던 유럽의 문화재에 비해서, 자연과 규모의 균형 갖춘 우리의 사찰은 인류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유산이다.



유기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어떤 문화재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물질은 바위와 같은 무기물질이다. 1밀리미터의 100만분의 1 정도의 크기를 다루는 나노 과학자들은 유기 분

바위에 뿌리 내린 소나무·뼈와 피

무기물-유기물 결합한 인연의 그물

법주사는 서기 550년 경, 신라 진흥왕 때, 의신 화상이 인도에서 돌아와 지었다고 전해진다. 팔상전 등 국보급 유물이 불교를 이상향을 그렸던 선조들의 마음을 전해준다. 피부병이 많았던 세조께서도 들러서 법회를 열었다고 전한다. 법주사를 품고 있는 속리산 또한 명산이다. 초입부터 소나무가 세속에 찌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준다.

속리산 소나무는 어느 나무보다도 잘 생겼다. 물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아니면 바위가 소나무를 그렇게 강하게 키웠는지 알 수는 없다. 아마, 청정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바위가 어울려서 한국의 소나무를 키워 냈을 것이다. 특히 바위 위에서 자란 소나무는 우리를 경외롭게 만든다. 물을 찾아서 웅트립 모습을 한 뿌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만든다.

재료공학자들은 지구의 물질을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로 나눈다. 유기물 자들을 조작해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미량의 암 독소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와 같은 무기물질을 나노 크기의 입자로 쪼개고, 그 표면을 잘 처리해서 원하는 유기분자를 붙인다. 이 유기분자가 병원균과 결합하게 되면 나노 입자의 성질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병원균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바위 위에서 뻗어나간 소나무의 뿌리를 보면서, 무기물질과 만나는 유기물질의 인연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는 나의 몸 역시 무기물질(뼈)과 유기물질(피, 호르몬)의 만남으로 이뤄져 있음을, 그리고 이 인연이 흩어지면 또한 작은 원소로 다시 돌아가는 위대한 인연의 그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대한불교법화종 제9대 성파 대중사 중정 추대법회

모 시 는 말 씀

귀의 삼보하옵고

일륜(日輪)이 빛을 더하면 만물이 더욱 후덕하고, 일인(一人)의 덕화가 더 높으면 중생의 고난이 덜어지매, 성파 대중사의 중정 추대를 불보살께 우러러 고하고자 합니다.

한사람의 뜻이 천만 갈래로 퍼지니, 본종 제9대 성파 대중사 중정 추대법회에 수회 동참하시어 가지마다 영근 복덕을 듬뿍 가져 가소서...

불기 2549년 좋은날

봉행 일시 및 장소

● 일시: 불기2549(2005)년 9월 28일(수) 오전 11시

● 장소: 신라고찰 안정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소재)

● 문의: 02)762-2678(서울 총무원) / 팩스 02)747-5044 055)649-3503(안정사)

대한불교법화종 제9대 중정추대 봉행위원회 합장

